

# 육아가치관, 부부관계만족도 및 육아지원이 영·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

최 정 신(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Post Doc)

본 연구는 육아와 관련된 가치관과 부부관계만족도 및 육아지원을 파악하여 영·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해 보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. 연구대상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36개월 미만의 첫째 자녀를 가진 부부 300쌍을 대상으로 2007년 3월부터 4월에 걸쳐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.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척도는 牧野(1985)의 것을 참고하였고,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(Cronbach's  $\alpha$  계수=.68). 아버지의 양육스트레스는 冬木(1997)의 '아버지 양육스트레스' 문항 중에서 신뢰도가 높은 8항목을 사용하였다(Cronbach's  $\alpha$  계수=.72).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측정하여 합산하였으며,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. 육아와 관련된 가치관은 아버지의 가사육아 참여의식, 성별역할분업의식, 모성규범의 3개 요인으로 총 12문항을 사용하였고,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측정하여 합산하였으며, 점수가 높을수록 육아와 관련된 가치관이 보수적인 것을 의미한다. 육아지원 특점은 山根 외(1990)의 육아지원 기능 분류 및 항목을 참고하였고, 점수가 높을수록 육아지원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. 부부관계만족도는 木脇 외(2003)를 참고하였고,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,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관계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. 자료 분석 방법은 SPSSWIN 13.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, 빈도분석, Cronbach's  $\alpha$  계수, paired t-test,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.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.

첫째, 육아와 관련된 가치관에 있어서 부부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(아버지의 가사육아참여의식  $t=-9.899$   $p<.001$ , 성별역할분업의식  $t=-5.876$   $p<.001$ , 모성규범  $t=-2.382$   $p<.05$ ), 남편이 아내보다 육아와 관련된 가치관에 있어서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. 둘째, 배우자지원, 친족지원, 지역지원은 부부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, 남편은 아내보다 배우자( $t=-4.638$   $p<.001$ )와 배우자 친족( $t=-3.045$   $p<.01$ )에 의한 지원이 더 높았고, 아내는 남편보다 본인친족( $t=4.680$   $p<.001$ )과 지역( $t=7.168$   $p<.001$ )에 의한 지원이 더 높았다. 그러나 기관에 의한 지원은 부부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. 셋째, 부부관계만족도는 부부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, 남편이 아내보다 만족도가 더 높았다( $t=-3.763$   $p<.001$ ). 넷째,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, 아내는 심리적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쳐서, 남편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( $\beta=0.202$   $p<.001$ ), 부부관계만족도가 낮을수록( $\beta=-0.278$   $p<.001$ ) 양육스트레스가 높았다(Adj  $R^2=0.133$   $F=4.046$   $p<.001$ ). 남편은 심리적 요인과 가치관 요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쳐서, 성별역할분업의식이 보수적일수록( $\beta=0.248$   $p<.001$ ), 아내의 양육스트레스가 높을수록( $\beta=0.171$   $p<.01$ ), 부부관계만족도가 낮을수록( $\beta=-0.122$   $p<.05$ ) 양육스트레스가 높았다(Adj  $R^2=0.120$   $F=3.729$   $p<.001$ ). 그러나 육아지원은 부부의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.

본 연구결과 남편의 양육스트레스에는 성별역할분업의식도 영향을 미치지만, 특히 부부관계만족도와 배우자의 양육스트레스가 아내와 남편 모두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즉, 부부간의 만족도를 높이고, 배우자의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킴으로써 부부의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다. 따라서 영·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의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부부관계 향상을 위한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.